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1.7

JAN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47.65원 (+3.85원)

KOSPI

4,525.48 (+67.96, +1.52%)

KOSDAQ

955.97 (-1.53, -0.16%)

국고채 10년 금리

3.398 (+0.002%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	연초효과와 남아있는 경계감 [김상만]
New K-ETF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박승진]
실전 퀀트	키 맞추기 장세에 유리한 저평가 종목 [이경수]

기업분석

RFHIC	실적에 이벤트까지, 매수 서두르세요 [김홍식]
RF머트리얼즈	미국의 중국 제재 본격화, 최고의 스토리로 나아가는 중 [김홍식]
현대제철	2026년 봉형강 수익성 개선 기대 [박성봉]
효성중공업	일시적인 폼의 변화 [유재선]
삼성에스디에스	추가 데이터센터 확보에 집중 [이준호]
넷마블	훌륭한 마무리, 1월 첫 타석 준비 [이준호]
야스	어게인 2018 [권태우]
RFHIC	실적에 이벤트까지, 매수 서두르세요 [김홍식]

산업분석

자동차	CES발 로봇 모멘텀과 로봇 모멘텀 자체를 구분할 필요 [송선재]
자동차	미국 자동차 판매 동향(2025년 12월) [송선재]
엔터테인먼트	BTS와 빅뱅의 동반 컴백으로 사상 최대 이익 전망 [이기훈]
카지노	4분기 호실적에 더해 한일령 수혜도 기대 [이기훈]
운송	2026년 해운 시황: 벌크/탱커 Good, 팬오션 주목할 것 [안도현]

Monthly

건설	1월: 2025년 결산 [김승준]

글로벌리서치

미국 우주 산업	2026년 우주 정책 지원과 주요 프로젝트 진행에 주목 [김재임]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역대 최고 실적, 2026년 EPS 가이던스까지 긍정적 [유재선]
미국주식 이슈 코멘트	AsteraLabs(ALAB) 하락 코멘트 [강재구]
미국 태양광	정책 모멘텀이 집중된 2026년 [김시현]
미국 리츠	2025년 CMBS 연체율 정리 [하민호]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 키움증권, 롯데렌탈, 해성디에스, 알테오젠, 현대무벡스, 에코마케팅, RF머트리얼즈

하나증권

2026년 1월 7일 Global Asset Research

CrediVille

연초효과와 남아있는 경계감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한적인 연초효과 발현 전망

연말 채권시장 및 신용채권시장에 경계감을 불어넣었던 소위 은행발 유동성 경색 현상은 12월로 접어들면서 점차 진정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은행권의 절대 조달 규모 자체가 11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스프레드의 경우에는 유동성 경색 현상의 발생/소멸과 일정부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유동성 경색 현상이 나타났던 11월 중에는 여전채/회사채 위주로 신용스프레드 확대가 제한적이었으나 오히려 12월 들어서 전반적인 확대세가 나타난 것이다. 시장 분위기를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완만하게 반영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된다. 물론 이마저 월말로 접어들면서 추가적인 확대는 없었고 한산한 연말 장세를 반영되면서 횡보세를 나타냈다.

한편 12월 중순 이후 신용스프레드의 안정화에는 시장금리의 안정 또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2월 11일 3.1%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이전의 빠른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금리 상승을 후행적으로 반영하면서 상승했던 단기물(CP/CD)금리 또한 시장금리의 안정세를 다시금 후행적으로 추종하면서 확대세를 진정시켰다. 다만, 은행 조달 감소로 인해 CD금리는 하락세로 전환된 반면 CP금리는 고점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신용스프레드가 아닌 절대금리 측면에서 보면 회사채금리는(국고금리 하락을 반영하면서) 하락하였으나 단기 CP금리는 유지되면서 단기 구간에서의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25년 11월 이후 확대된 CP금리는 예년에 비해 확대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모습이다. 그리고 그 같은 현상이 시장금리의 확대세가 동반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시장위험을 반영하고 있고 어디까지가 신용위험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어려운 현실이다.

아무튼 단기 구간을 제외하면 연말 신용스프레드는 안정세를 보이면서 26년 연초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초 자금집행 및 회사채 발행 재개 등과 맞물려 올해 또한 연초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올해의 경우 예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연말 금리 상승에 따라 기업들이 조달 계획을 이연 시키면서 수요예측 대기 물량이 예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1~2월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각각 10조원을 상회한다. 그에 따라 공모 회사채를 통해 조달하지 못하는 물량에 대한 대체조달이 필요하고 그중 상당부분은 CP조달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점이 단기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할 것이다. 물론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두려움으로 단기물 선호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요측면에서 단기 신용채권에 대한 매수세는 견조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요인이 가격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요예측 감소에 따른 발행시장 강세 여력 제한 및 단기물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한 점 등이 올해 연초효과가 예년과 달리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Analyst 김상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1월 6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신규 상장 ETF(1/6)
- TIGER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TIGER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테마형 패시브 ETF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피지컬 AI의 영역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역시 빅테크 기업들과 각국 정부 주도 하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한국 역시 정부 주도의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32조원 규모가 AI와 로봇 분야에 투입될 계획(5년간)으로, 정책 모멘텀의 기대 역시 유효한 테마이다.

'TIGER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는 국내 휴머노이드 기업 가운데 이미 상용화 단계에 돌입한 15개 기업들을 선별하여 편입하는 종목이 되겠다. 핵심 부품부터 로봇 제조, 소프트웨어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밸류체인 기업들에 투자하는 테마 ETF이다.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 가운데 유동성 조건(시총 2천억원↑, 평균 거래대금 10억원↑)을 충족시키면서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자동차 변속기 및 파워트레인 부품 제조업', '컴퓨터 시스템 설계 서비스업', '기타 범용 일반 목적 기계 제조업'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유니버스로 한다.

이어 해당 유니버스 종목들을 '휴머노이드 로봇' 키워드를 기준으로 LLM 기반 유사도 평가 모델에 반영하고, 유사도 점수 80%와 시가총액 점수 20%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상위 15개 기업을 최종 편입 대상으로 선정한다.

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은 키워드 유사도 점수 50%와 시가총액 점수 50%의 기준을 가중 배분하여 결정하게 되며, 최대 비중을 15%의 Cap Rate(컴퓨터 시스템 설계 서비스업 종목은 6%의 Cap Rate 적용)로 제한하는 동시에 최소 1% 이상의 비중으로 편입한다. 또한 핵심 종목으로 판단되는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상장될 경우 특례 편입도 진행될 수 있다.

상기 방법론을 반영한 상장일(1/6) 기준 종목 포트폴리오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로보티즈, 두산로보틱스, 에스피지가 각각 10% 이상의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에스피지, 하이젠알앤엠, 로보스타, 뉴로메카, 삼현, 유진로봇, 현대오토에버, LG씨엔에스, 현대무벡스, 엔젤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클로봇까지 총 15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4회(1월/4월/7월/10월 옵션 만기일 장 종료 후)에 걸쳐 진행된다. 0.50%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패시브 ETF이다.

키 맞추기 장세에 유리한 저평가 종목

실전 퀀트 | 2026.0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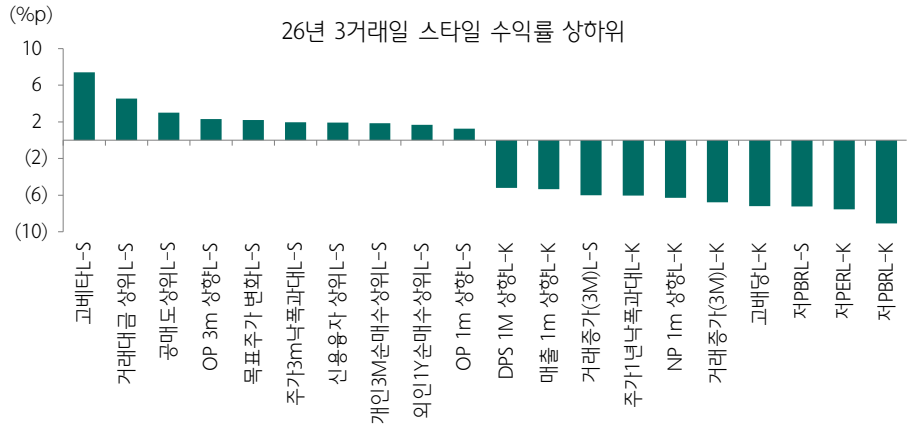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연초 시장 특성 파악 및 대응 방법

무리한 베타 베팅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시장 키 맞추기 컨셉, 저평가 및 실적 기대감에 초점

- 올해 첫 3거래일에서 보인 가장 큰 특징은 반도체 투 톱 초강세로 시장을 이기기 어려운 흐름 지속(대부분 팩터 Underperfoming vs. KOSPI)
- 다만, 롱-숏 기준으로 반도체 외 연초 시장 분위기를 유추하자면, 실적 및 목표주가 상향 팩터의 성과가 높고 고베타 및 거래대금 상위 팩터 역시 수익률 상위를 기록 중
- 아직 월초지만 1월 특유의 계절성(저평가 강세)과는 괴리, 다만 대형주와 반도체, 실적팩터 강세는 과거 계절성과 유사
- 함의는 1) 실적 측면에서 압도적인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반도체와 같이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군에 베팅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는 분위기(펀더멘털 알파 스킴 작동 중)
- 또한 2) 상승장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특정 내러티브 섹터 및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 용인되는 상황(내러티브 알파 베팅). 즉, 베타(지수 및 반도체 영향)와 알파가 공존하는 연초 분위기
- 다만, 중기적 투자 컨셉에서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베타보다는 '알파(실적주 및 저평가주)'일 것, 지수 상승 변동성 완화 시기에 알파 컨셉의 강세가 나타나는 특성 때문, 베타(지수)보다 알파(실적주 등)의 상승 파동이 조금 더 후행적이고 긴 특성
- 게다가 모든 투자주체별 거래대금이 증가 중, 코스피의 시가총액대비 거래대금 비중은 전일 기준 0.68%로 증가하여 1년 평균 0.48% 대비 높은 수준(작년 전고점 0.88%)
- 특히 기관들의 거래대금 비중이 급증(작년말 18%, 올해초 27%)하며, 연초 포트폴리오 조정이 활발한 상황으로 유추, 알파 전문가인 기관이 선호하는 저평가이면서 실적 하향이 멈췄거나 소폭 상향되는 종목군은 LG이노텍, 현대제철, LG화학, BNK금융지주, NAVER, 코웨이 등 [도표 6 참고]

도표 1. 2026년 3거래일의 스타일 수익률 상하위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주: KRX300 종목 중 상하위 각 20% 롱-숏, 롱-코스피(월간 리밸런싱, 수수료 감안 X)

2026년 01월 07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RFHIC (218410)

실적에 이벤트까지, 매수 서두르세요

BUY (유지)

목표주가(12M)	60,000원(상향)
현재주가(1.06)	3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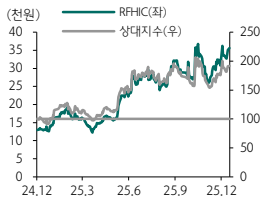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955.97
52주 최고/최저(원)	37,500/12,240
시가총액(십억원)	993.9
시가총액비중(%)	0.18
발행주식수(천주)	26,503.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07.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9.8
외국인지분율(%)	17.61
주요주주 지분율(%)	
조덕수 외 14 인	33.59
국민연금공단	6.11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68.1	208.6
영업이익(십억원)	28.8	35.9
순이익(십억원)	28.8	33.8
EPS(원)	945	1,113
BPS(원)	13,038	14,157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11.4	114.9	172.6	204.5
영업이익	0.3	1.5	29.7	34.9
세전이익	7.4	25.0	35.8	37.6
순이익	17.4	25.7	25.8	29.3
EPS	652	969	975	1,107
증감율	526.92	48.62	0.62	13.54
PER	27.68	13.52	38.46	33.88
PBR	1.58	1.05	2.82	2.62
EV/EBITDA	52.08	24.94	21.52	20.36
ROE	6.24	8.60	8.07	8.52
BPS	11,423	12,453	13,320	14,331
DPS	100	100	100	1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 12개월 목표 주가를 6만원으로 상향 조정

RFHIC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한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이유는 1) 이번 달 발표예정인 RFHIC 2025년 4분기 실적이 투자가들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고, 2) 미국 행정부가 2026년 4GHz 대역 주파수 경매 진행에 이어 2027년 이후 4/7GHz 주파수 경매안 마련에 나서고 있어 신규 주파수 공급 및 투자에 따른 통신장비 업종 장기 빅 사이클 돌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3) 본사와 더불어 자회사 실적도 개선되는 양상이라 2026년도에도 높은 이익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고, 4) 본격적인 통신장비 업황 호전이 예상됨을 감안하면 현재 Multiple은 매력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자료를 통해 RFHIC의 12개월 목표주가를 6만원으로 50% 상향 조정한다. 2026년 Target PBR을 4배로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인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광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과 곧 진행될 미국 장기 주파수 공급을 앞두고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였다. 과거 RFHIC 역사적 PBR 추이 및 최근 타 섹터 Multiple 수준을 감안하면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목표주가를 산정하였다는 판단이다.

RF에 광까지 호조, 지난 실적도 좋지만 빅사이클에 이미 진입했다는 것이 중요

RFHIC 2025년 4분기 실적은 역대급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인센티브 지급을 감안해도 연결 영업이익 103억원(+329% YoY, +39% QoQ)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6년 실적 전망 역시 낙관적이다. 아직은 2026년 RFHIC 연결 영업이익을 YoY 18% 증가한 34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판단한다. 방산 부문 매출이 유지된다고 보면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당연시되기 때문이다. RF머트리얼즈의 루멘텀향 매출이 전년대비 2배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통신사들의 신규 주파수 관련 투자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급증할 것이란 점에서 판단하면 그렇다. 이미 RFHIC가 2025~2028년 빅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향후 미국 수출 동향을 점검하면서 실적 상향 조정 작업에 나서야 할 것 같다.

미국 역대급 주파수 풀릴 예정, 28년까지 내다본 적정 가치 산정 고민해볼 시점

RFHIC 주가 전망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은 2026년 미국 주파수 경매 및 통신사 신규 주파수 투자 본격화이다. 섹터 특성상 단기 실적보다는 큰 그림을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방산 및 자회사 광 사업 부문 매출 증가가 단기 실적 향상을 견인하고 있지만 주가 측면에서 역시 강력한 드라이브는 RF 부문의 실적이다. 그런데 드디어 전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주파수 경매에 나서고 있다. 2026년을 필두로 2028년까지 800MHz에 달하는 신규 주파수가 할당될 예정이며 이는 역대 단기간 최대 주파수 할당 폭이다. 2026~2028년까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시 RFHIC Multiple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어 보인다.

2026년 01월 07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RF머트리얼즈 (327260)

미국의 중국 제재 본격화, 최고의 스토리로 나아가는 중

BUY (유지)

목표주가(12M)	50,000원(상향)
현재주가(1.06)	24,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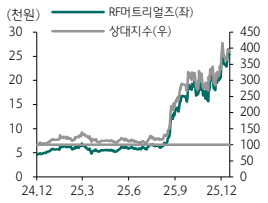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955.97
52주 최고/최저(원)	26,300/4,840
시가총액(십억원)	204.9
시가총액비중(%)	0.04
발행주식수(천주)	8,433.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59.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5.1
외국인지분율(%)	6.48
주요주주 지분율(%)	
알에프에이치아이씨 외 9 인	51.20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60.2	77.1
영업이익(십억원)	6.7	9.6
순이익(십억원)	7.0	8.7
EPS(원)	611	1,061
BPS(원)	5,521	6,588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47.9	44.5	61.5	85.0
영업이익	(0.0)	(1.5)	6.8	11.6
세전이익	0.4	(7.5)	7.9	13.3
순이익	(0.7)	(4.8)	5.0	10.4
EPS	(80)	(568)	597	1,234
증감율	적전	적지	흑전	106.70
PER	(133.00)	(8.41)	40.70	19.69
PBR	2.02	0.94	4.21	3.47
EV/EBITDA	25.76	19.96	18.23	13.23
ROE	(1.53)	(11.22)	11.47	20.04
BPS	5,259	5,102	5,773	7,007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RF머트리얼즈 투자의견 매수 유지, 12개월 목표주가 50,000원으로 상향 조정

RF머트리얼즈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 글로벌 데이터센터 증축 기조에 힘입어 4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2) 미 국방부가 Innolight, Eoptolink 등 중국 주요 광모듈 업체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반사 수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3) 2026년부터 미국에서 4GHz 대역 주파수를 경매에 부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800MHz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주파수 경매가 예정되어 있어서 광모듈에 이어 큰 폭의 RF부문 성장도 가능해지고, 4) 광과 RF 호재가 겹치면 역사적 멀티플 이상으로 멀티플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광 투자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에 관한 상세 법령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멀티플 확장 근거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26년 Target PBR을 7배로 상향 조정하여 목표주가 5만원을 산정했다.

미국의 중국 광모듈 업체 제재 본격화, RF머트리얼즈 대규모 반사 수혜 예상

RF 머트리얼즈는 3분기에 이어 25년 4분기와 26년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전망이다. 광모듈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루멘텀의 광모듈 공급량이 글로벌 수요량보다 25~30% 부족했는데 이는 2분기 부족분 20%보다 확대된 양이다. 3분기 루멘텀 매출액이 전분기대비 증가했음에도 부족분은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방부가 중국 Eoptolink와 Innolight를 국방부 1260H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확정될 경우 국방부 거래가 금지되고, 향후 화웨이나 ZTE처럼 광범위한 제재 적용의 단초가 될 수 있다. AI서버 시장의 52%가 북미시장이고, Innolight 25년 1H 매출의 86%가 수출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산 광모듈 제재로 인한 대규모 쇼티지가 예상된다. 중국 공급망을 RF머트리얼즈가 대체하면서 향후 역대급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겹호재 반영 못해, 최고의 스토리에 걸맞는 새 멀티플 필요

현재 멀티플은 RF머트리얼즈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2026년부터 미국에서 Upper C 밴드 주파수 경매를 시작으로 향후 800MHz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주파수 경매가 예정되어 있다. 모회사 RFHIC를 통해 북미향 통신장비 매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대형 호재 2개가 겹치니 역사적 멀티플 이상으로 멀티플이 확장될 것이다. 그런데 반해 '26년 fwd PBR은 3.6배 수준에 그친다. '20년 RF시스템즈 인수 당시 PBR이 5배까지 상승했는데, 루멘텀향 성장 잠재력이 당시 RF시스템즈 인수를 통한 방산 사업부 확보 효과보다 큰 점을 감안하면 RF머트리얼즈 타켓 PBR은 7배 이상이 타당하다. 그만큼 RF머트리얼즈가 처한 환경이 전례 없이 우호적인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없다고 본다.

2026년 1월 7일 | 기업분석_ Earnings Preview

현대제철 (004020)

2026년 봉형강 수익성 개선 기대

BUY (유지)

목표주가(12M)	50,000원
현재주가(1.06)	29,6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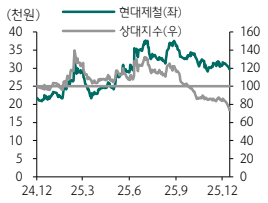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525.48
52주 최고/최저(원)	37,600/21,350
시가총액(십억원)	3,956.7
시가총액비중(%)	0.11
발행주식수(천주)	133,445.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19.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3.3
외국인지분율(%)	23.10
주요주주 지분율(%)	
기아 외 6 인	35.96
국민연금공단	8.79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23,145.1	24,194.8
영업이익(십억원)	316.3	794.6
순이익(십억원)	69.8	436.9
EPS(원)	457	3,184
BPS(원)	144,408	146,619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5,914.8	23,226.1	23,024.2	24,218.6
영업이익	798.3	159.5	280.7	755.8
세전이익	532.1	(59.5)	79.0	499.8
순이익	461.2	(11.6)	59.2	378.6
EPS	3,456	(87)	444	2,837
증감율	(54.68)	적전	흑전	538.96
PER	10.56	(241.95)	69.93	10.59
PBR	0.25	0.15	0.22	0.21
EV/EBITDA	5.48	6.14	6.57	5.26
ROE	2.44	(0.06)	0.31	1.99
BPS	143,973	142,610	142,315	144,413
DPS	1,000	750	750	750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4분기 판매량은 감소하지만 고로와 전기로 모두 스프레드 확대

2025년 4분기 현대제철의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8조원(YoY +3.0%, QoQ +0.8%)과 1,047억원(YoY 흑.전, QoQ +12.3%)으로 영업이익은 시장컨센서스인 1,405억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1) 계절적 비수기와 추석 연휴 영향으로 판재류 중심으로 판매가 감소하며 4분기 전체 판매량은 428만톤(YoY +1.7%, QoQ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고로 원재료 투입단가 상승에도 불구, 이를 상회하는 ASP 상승으로 고로 스프레드는 대략 1만원/톤 확대될 전망이다. 3) 전기로 또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지만 국내 제강사들의 적극적인 철근 감산 영향으로 ASP가 이를 상회하면서 스프레드가 대략 0.4만원/톤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4) 해외 SSC와 현대스틸파이프 등의 국내 주요 자회사들이 이익은 전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5) 연말 성과급 지급으로 판관비는 대체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근 유통가격 상승세 전환, 1분기에도 봉형강 중심 스프레드 확대 기대

1분기도 설연휴와 더불어 적극적인 철근 감산 영향으로 현대제철의 철강 판매는 428만톤(YoY +3.4%, QoQ -0.3%)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현대제철을 비롯한 국내 제강사들의 감산 및 출하제한 영향으로 일부 철근 품목은 공급 부족 주장까지 제기되며 12월 중순부터 철근 유통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주요 제강사들이 설연휴 전후로 대보수 계획들이 잡혀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동한 타이트한 철근 수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봉형강은 1분기에도 스프레드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판재류의 경우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일부 중국업체들은 가격 약속으로 대체)와 일본산 및 중국산 열연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에도 불구, 내수 부진으로 유통가격이 반등에 실패한 상황으로 1분기는 4분기와 유사한 스프레드가 예상된다. 이를 감안하면 1분기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1,320억원(YoY 흑.전, QoQ +26.1%)을 기록할 전망이다.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50,000원 유지

현대제철에 대해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50,000원을 유지한다. 정부의 철강 산업 고도화 정책에 있어 철근의 중점 조정 대상 선정과 더불어 철근시장 구조조정 관련 추가 정책 발표가 예상되고 철근 내수도 최악을 지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봉형강 부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현재 주가는 PBR 0.21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제한적이다. 한편, 미국 전기로 투자 관련 현대제철의 최종 투자금액은 14.6억달러(약 2.1조원)로 일시적으로 차입금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공장 완공 이전까지 창출 현금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도한 차입금 증가 우려에서 벗어났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2026년 1월 7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효성중공업 (298040)

일시적인 폼의 변화

BUY (유지)

목표주가(12M) 3,000,000원(유지)
현재주가(1.6) 1,84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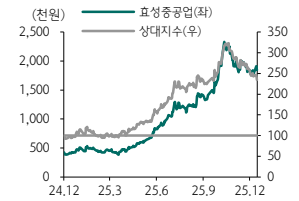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525.48
52주 최고/최저(원)	2,328,000/382,500
시가총액(십억원)	17,203.8
시가총액비중(%)	0.46
발행주식수(천주)	9,324.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0.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18.4
외국인지분율(%)	26.28
주요주주 지분율(%)	
효성 외 12 인	43.96
국민연금공단	10.25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5,941.9	6,911.2
영업이익(십억원)	669.2	975.7
순이익(십억원)	498.1	727.4
EPS(원)	52,437	76,205
BPS(원)	251,101	320,525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4,300.6	4,895.0	5,855.8	6,766.8
영업이익	257.8	362.5	681.9	973.1
세전이익	169.7	223.6	602.9	903.9
순이익	116.0	222.6	473.9	687.0
EPS	12,438	23,876	50,822	73,674
증감률	1,034.85	91.96	112.86	44.96
PER	13.02	16.46	35.04	25.04
PBR	1.40	1.92	7.18	5.92
EV/EBITDA	7.74	10.43	22.49	16.26
ROE	11.29	14.90	22.46	26.35
BPS	115,933	204,753	247,927	311,415
DPS	2,500	5,000	10,200	14,70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목표주가 3,000,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효성중공업 목표주가 3,000,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다. 계절적으로 일회성 비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분기다. 성과급 규모와 건설 부문 대손충당금 여부에 따라 이익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매출도 영업일수 변화에 더해 2025년 3분기 및 2024년 4분기 급격한 성장의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일시적인 추세 변화가 확인될 수 있다. 하지만 분기 단위 숫자 변동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지역별 수주잔고 비중 변화 추이를 감안할 때 중장기 매출과 마진은 해외 비중 상승에 후행하여 우상향 추세를 기록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6년 추정치 기준 PER 25.0배, PBR 5.9배다.

4Q25 영업이익 1,955억원(YoY +47.9%) 컨센서스 부합 전망

4분기 매출액은 1조6,302억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할 전망이다. 중공업 부문의 성장은 한 자리 수 중반이 예상된다. 환율은 우호적이었지만 추석 명절 영업일수 기저효과로 성장 추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 법인은 양호한 추세를 지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 외형 성장 속도 둔화는 단기 국내 이슈로 제한될 전망이다. 건설도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외형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은 1,955억원으로 전년대비 47.9% 증가할 전망이다. 중공업 부문은 1,798억원으로 56.1% 증가가 예상되며 이익률은 전년대비 5.2%p 개선된 16.0%로 추정된다. 관세 관련 비용 인식은 부과 이후 인도분에 전가하여 보전받는 형태가 예상되며 2026년부터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부문은 한 자리 수 초중반 마진으로 수익성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사적으로 일시적 비용 유무에 따라 분기 이익 변화 여지가 존재하나 긴 호흡에서 연간 단위 마진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세전이익은 전년동기 건설 부문의 일회성 비용 기저효과로 유의미한 성장이 나타날 전망이다.

중공업 수주 흐름 양호. 향후 매출 Mix 개선만으로도 담보되는 실적 성장

3분기 누적 중공업 부문 신규 수주는 약 5.7조원이다. 4분기에 영국, 스웨덴, 스페인 등에서 다수 수주를 기록하는 등 연간 수주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현재 수주잔고 가운데 해외의 비중이 현재 인식되고 있는 해외 매출 비중보다 높기 때문에 향후 매출 Mix 변화만으로도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 국내 동종업계의 2026년 매출 및 수주 가이던스 발표 이후 주가 낙폭이 확대된 상황에서 단기 실적 둔화 가능성은 주가 반등 시점을 뒤로 늦추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폼의 부진을 장기적인 성장 방향의 변화와 연결해서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빠른 이익 개선 속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2026년 1월 7일 | 기업분석_Preview

삼성에스디에스 (018260)

추가 데이터센터 확보에 집중

BUY(유지)

목표주가(12M)	220,000원
현재주가(1.06)	181,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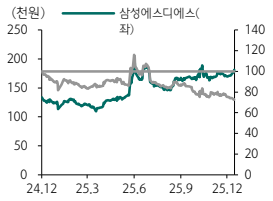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525.48
52주 최고/최저(원)	193,500/109,600
시가총액(십억원)	14,013.1
시가총액비중(%)	0.37
발행주식수(천주)	77,377.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95.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3.9
외국인지분율(%)	19.19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전자 외 11 인	48.93
국민연금공단	9.97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4,081.3	14,925.9
영업이익(십억원)	972.8	1,043.5
순이익(십억원)	809.6	897.4
EPS(원)	10,215	11,306
BPS(원)	127,607	136,350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3,276.8	13,828.2	13,890.4	14,318.5
영업이익	808.2	911.1	959.3	1,038.7
세전이익	985.5	1,102.8	1,073.2	1,181.4
순이익	693.4	757.0	757.4	829.0
EPS	8,962	9,783	9,789	10,713
증감율	(36.95)	9.16	0.06	9.44
PER	18.97	13.06	17.52	16.90
PBR	1.52	1.06	1.35	1.34
EV/EBITDA	6.23	3.44	4.93	4.94
ROE	8.22	8.42	7.91	8.19
BPS	111,913	120,638	126,938	134,752
DPS	2,700	2,900	2,900	2,900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4Q25 Pre: 컨센서스 소폭 하회 전망

삼성에스디에스는 4분기 매출액 3조 4,973억원(-4.0%YoY, +3.1%QoQ), 영업이익 2,283억원(+8.0%YoY, -2.6%QoQ. OPM 6.5%)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 4분기 IT 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1조 6,941억원(+3.8%YoY, +6.2%QoQ)으로 예상한다. 클라우드 매출 7,363억원(+22.8%YoY, +9.1%QoQ) 내 CSP는 2,916억원(+26.3%YoY, +4.2%QoQ), MSP는 3,354억원(+26.7%YoY, +14.0%QoQ)으로 추정한다. 작년 4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플랫폼 솔루션 구축 R&D 비용 집행을 감안했을 때 IT서비스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12.1%으로 예상한다. 4분기 물류 부문 매출액은 1조 8,032억원(-10.3%YoY, +0.4%QoQ)으로 추정한다. 대외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아 물동량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상운임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4분기 물류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1.3%로 예상한다.

2026년에도 편안한 실적 전망

2026년 매출액 14조 3,185억원(+3.1%YoY), 영업이익 1조 387억원(+8.0%YoY, OPM 7.3%)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6년에도 클라우드 기반 안정적 성장 지속 가능하다. IT 서비스 매출액은 6조 8,730억원(+4.6%YoY), 연간 클라우드 매출액은 3조 2,587억원(+19.4%YoY)로 추정한다. SI, ITO의 대외 시장이 우호적이진 않은 상황이나 공공/금융 부문 클라우드 침투를 지속하여 만회할 계획이다. 오픈AI와 ChatGPT 엔터프라이즈 리셀러, 서비스 파트너 계약 완료하여 AI 에이전트 라인업을 구축했다. 국내 B2B AI 에이전트 채택에 따른 매출 증가 예상한다. 또한 국내 AI 팩토리 사업화에 따른 디지털 팩토리 부분 성장도 가능하다. 대외 상황과 별개로 캡티브에서 IT 투자 확대가 이뤄진다면 실적 업사이드도 기대할 수 있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20,000원 유지

삼성에스디에스의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20,000원, 인터넷 산업 차선호주 의견 유지한다. 삼성에스디에스는 1월 2일 유형자산취득결정 공시를 통해 구미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공식화했다. 규모는 4,273억원이며 공사완료 및 가동 예정일은 2029년 3월이다. 해당 금액은 구미 AI 데이터센터 건물 및 설비 금액의 일부로 파악되며 자세한 규모는 실적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에스디에스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자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3월 최종 선정 후 해남 데이터센터의 규모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데이터센터의 개소 시점은 2028년 이후로 예상되나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해 클라우드 매출 성장 로드맵이 충분히 그려진다. 이는 기업 가치에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2026년 1월 7일 | 기업분석_Preview

넷마블 (251270)

훌륭한 마무리, 1월 첫 타석 준비

BUY(유지)

목표주가(12M)	73,000원
현재주가(1.06)	49,4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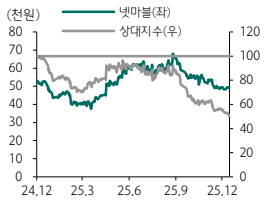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525.48
52주 최고/최저(원)	68,000/37,500
시가총액(십억원)	4,250.4
시가총액비중(%)	0.11
발행주식수(천주)	85,953.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84.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9.7
외국인지분율(%)	27.35
주요주주 지분율(%)	
방준혁 외 12 인	24.33
HAN RIVER INVESTMENT PTE. LTD.	17.52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2,792.8	3,011.7
영업이익(십억원)	347.1	411.5
순이익(십억원)	321.2	339.0
EPS(원)	3,615	3,785
BPS(원)	69,500	75,077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502.1	2,663.8	2,779.8	2,972.1
영업이익	(68.5)	215.6	338.5	396.0
세전이익	(158.6)	76.3	387.3	393.8
순이익	(255.7)	25.6	309.5	323.6
EPS	(2,975)	298	3,601	3,765
증감율	적지	흑전	1,108.39	4.55
PER	(19.53)	173.49	13.40	13.13
PBR	0.93	0.76	0.71	0.69
EV/EBITDA	54.91	14.86	10.97	9.49
ROE	(4.90)	0.49	5.70	5.80
BPS	62,650	67,728	67,951	71,319
DPS	0	417	417	417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4Q25 Pre: 영업이익 컨센서스 소폭 하회 전망

넷마블은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 7,423억원(+14.4%YoY, +6.7%QoQ), 영업이익 968억원(+174.9%YoY, +6.4%QoQ, OPM 13.0%)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글로벌 확장 온기 반영으로 2분기와 유사한 96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8월 출시한 [뱀피르]는 10월 양 대 스토어 1위를 마지막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 온기 반영에도 불구하고 3분기와 비슷한 630억원 수준을 예상한다. 4분기 영업비용은 6,456억원(+5.2%YoY, +6.7%QoQ)으로 추정한다. 매출 대비 지급 수수료율은 33.0%(-2.7%pYoY, +0.6%pQoQ)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예상하며 매출 대비 마케팅비 비율은 19.8%으로 추정한다.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을 포함한 글로벌 게임쇼 마케팅 증가, [세븐나이츠 리버스], [RF온라인 넥스트] 글로벌 확장 영향이다.

2026년도 청신호

넷마블은 2026년 영업수익 2조 9,721억원(+6.9%YoY), 영업이익 3,960억원(+17.0%YoY, OPM 1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4년, 2025년 확실한 턴어라운드로 2년 연속 증명에 성공했으며 2026년도 호실적의 가시성이 높다. 2025년 좋은 성과를 거둔 [RF온라인 넥스트]. [세븐나이츠 리버스]. [뱀피르]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글로벌 지역 확장으로 실적에 여전히 기여하고 있다. 기존 최대 기대작이었던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은 1월 28일 글로벌 출시할 예정이다. [몬길: STAR DIVE]는 4월 출시를 예상한다. 이외에도 6개 이상의 신작이 준비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73,000원 유지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73,000원을 유지한다. 넷마블은 2025년 신작 3종의 높은 성과를 기반으로 한 이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12MF 13배로 거래되고 있다. 국내 게임 섹터 전반의 소외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디레이팅은 분명하다. 국내 게임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근 2년간의 신작 성공으로 2026년 실적 컨센서스에 신작 성과가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고 올해 신작의 윤곽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넷마블의 개별적인 트리거는 이후 신작의 기대 이상의 성공 밖에 없다. 올해 첫 번째 신작은 1월 28일 출시 예정인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이다. 해당 IP는 과거 북미, 일본에서 높은 매출을 확인한 바 있다. 출시 이후 2025년 [세븐나이츠 리버스]와 유사한 서프라이즈를 낸다면 시장의 관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026년 01월 07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야스 (255440)

어게인 2018

Not Rated

현재주가(01.06) **10,63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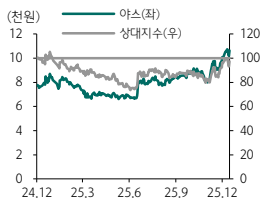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955.97
52주 최고/최저(원)	10,750/6,610
시가총액(십억원)	138.8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13,058.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9.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0.5
외국인지분율(%)	2.57
주요주주 지분율(%)	
정광호 외 3 인	46.59
엘지디스플레이	5.89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50	55	42	29
영업이익	1	(5)	(4)	(10)
세전이익	2	(2)	(4)	(9)
순이익	2	(1)	(3)	(11)
EPS	161	(65)	(261)	(765)
증감률	(82.0)	적전	적지	적지
PER	101.2	(120.6)	(40.8)	(10.0)
PBR	1.3	0.6	0.9	0.7
EV/EBITDA	37.6	0.0	0.0	0.0
ROE	1.3	(0.5)	(2.2)	(7.3)
BPS	12,423	12,303	12,023	11,156
DPS	50	0	0	0

Analyst 권태우 tkwon@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대면적 OLED 증착 장비 중심의 기술 선도 업체

야스는 2002년 설립된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전문 기업이다. 업계 최초로 수평형 대면적 OLED 증착기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현재는 중소형 중심의 증발원 공급과 함께 8세대 이상 대형 OLED 시장을 겨냥한 증착기 및 증발원을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다. 대형 시장에서는 증착 공정을 턴키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밀 온도 제어와 평탄도 유지가 가능한 척(Chuck) 기술을 통해 고정밀 증착이 가능하다. 또한 물질 증착 효율을 개선한 LNS(Linear Nozzle Source) 구조의 증발원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 효율은 약 70% 수준으로 파악된다. 주요 고객사로는 LGD(8세대 WOLED 증착기)와 BOE(8.6세대 증발원)가 있으며, 세계 최초로 8세대 이상 대형 기판에 대한 균일 증착 기술의 양산 검증을 완료한 이력도 확보하고 있다.

CSOT 발주 임박, 하이브리드 구조 확산 시 수혜 기대

글로벌 주요 패널사들은 2026~2027년을 전후로 8세대 이상 OLED 신규 투자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BOE는 8.6세대 양산 라인을 이미 구축 중이며, LGD도 AP6-E8 및 P1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IT용 OLED 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CSOT는 2026년 1분기부터 8.6세대 OLED 라인 장비 발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초기 월 22.5K 규모로 시작해 향후 45K 수준까지 단계적 증설이 논의되고 있다. BOE와 LGD는 전 공정에 증착 기술이 적용되지만, CSOT의 신규 라인은 공통층(EIL·ETL) 및 B EML에 증착, R·G 픽셀층에는 잉크젯을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다. 이 구조에서도 증착 공정은 여전히 핵심으로 유지되며, 관련 장비 수요 또한 유효하다. 특히 해당 방식이 양산에 안착할 경우, 유사 공정에 대한 수요 확산 가능성도 존재한다. 야스는 2014년 LGD, 2017년 BOE에 Soluble OLED용 R&D 장비를 공급한 이력을 바탕으로, 개발 단계부터 기술 신뢰도와 고객 기반을 축적해 왔다. 또한 CSOT의 하이브리드 구조에서 증착이 적용되는 주요 공정에 대응 가능하며, 이는 기술력과 공급 역량 측면에서 야스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이번 해외향 1차 프로젝트의 예상 수주 규모는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되며, 대형·고사양 장비 중심의 수주인 만큼 국내 대비 높은 수익성이 기대된다.

2026년 예상 POR 3배 수준, 리레이팅 여지 충분

2026년 매출액은 1,826억원(+502% YoY), 영업이익은 451억원(흑전 YoY)으로 전망된다. 올해 고객사의 장비 발주가 현실화될 경우, 동사는 신규 수주 2,000억원 이상(기존 및 신규)을 확보할 전망이다. 실제로 야스는 국내향 기준으로 증착기와 증발원 부문에서 각각 10% 이상, 20% 이상의 OPM을 기록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매출액 1,845억원, 영업이익 442억원(OPM 24%)을 달성하며 고수익 장비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재 2026년 예상 실적(POR 기준) 대비 주가는 3배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적 모멘텀과 수주 가시성 확대에 따라 리레이팅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2026년 1월 7일 | 산업분석

자동차

CES발 로봇 모멘텀과 로봇 모멘텀 자체를 구분할 필요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1월 06일

현대차(005380)
BUY | TP 310,000원 | CP 308,000원

기아(000270)
BUY | TP 140,000원 | CP 122,500원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강민아 minahkang@hanafn.com

CES 2026에서 로보틱스 전략을 발표

현대차그룹이 <CES 2026>에서 로보틱스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들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그룹 내 핵심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 이하 BD)에서 아틀라스(Atlas) 로봇의 연구형(prototype) 모델을 넘어 개발형(product) 모델을 공개했고, (2) 아틀라스의 개발 및 양산 일정에 맞춰 현대차그룹 내 다양한 자원들(자동차 기술 및 밸류체인, 그룹 로보틱스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며, (3) 엔비디아와 구글 딥마인드(DeepMind) 등 외부 회사들과의 협업도 추가 진행한다는 것이다.

2026년 RMAC 구축. 2028년 서열 작업. 2030년 조립 작업 등에 투입

(1) 재원: 개발형 아틀라스 모델은 키 190cm, 몸무게 90kg이고, 촉각 및 360도 카메라 센서를 장착했으며, 56의 자유도(DoF)를 보유하고, 최대 50kg(운반 30kg, 한손 20kg)을 들 수 있으며, -20도~+40도의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다. 바코드 스캐너와 RFID를 내장하고, 자율/원격 조작/태블릿 조작 등의 방식으로 조정된다. 배터리 수명은 4시간이고, 자동으로 배터리를 교체하는 시간은 3분이며, 배터리 충전 시간은 1.5시간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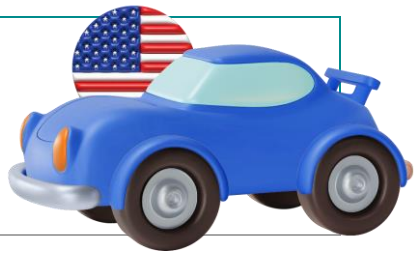
(2) 일정: BD는 2026년 중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랜트 공장 내 RMAC(Robot Metaplant Application Center) 시설을 구축하여 공장 투입 전 필요한 학습과 훈련을 받고, 공장 내 아틀라스를 실제 운영하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RMAC과 연구소에서 검증/개선할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개선된 아틀라스는 2028년까지 현대차그룹의 SDF(SW-Defined Factory, SW/데이터 중심의 제조 공장)에서 부품 분류와 같은 서열 작업에 투입하고, 이후 2030년까지 더욱 복잡한 조립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3) 파트너십: 모든 과정에서 현대차그룹 및 외부 협력사들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우선 연간 7백만대 이상(2026년/2030년 목표 750만대/980만대)의 자동차 판매 역량을 가진 현대차그룹의 밸류체인에서 테스트/훈련/부품공급/대량생산/RaaS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현대차/기아는 제조 인프라, 공정 제어, 대규모 생산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현대모비스는 고성능 액츄에이터와 같은 부품 공급이 가능하며, 현대글로비스는 물류 및 공급망 관리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로봇 AI 개발은 외부 협력사로서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와 협업한다. 구글 딥마인드의 'Gemini'를 기반으로 개발된 'Gemini 로보틱스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실제 환경에 맞춘 추론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CES발 로봇 모멘텀은 숨고르기이겠지만, 로봇 모멘텀 자체는 지속될 전망

현대차그룹이 <CES 2026>에서 로보틱스 전략을 발표한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단기적으로 CES발 로봇 모멘텀은 숨고르기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하지만, 산업(테슬라의 옵티머스 공개, 유니트리 상장, 미국의 로봇 지원 등) 및 그룹 내 로봇 모멘텀(RMAC/아틀라스/SDV 등) 자체는 연내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주가 동력이 될 것이다.

미국 자동차 판매 동향(2025년 12월)



현대차/기아의 2025년 미국 판매는 +8%로 마감 | 2026.01.07

투자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강민아 minahkang@hanafn.coms

Key Insight: 미국 내 HEV 위주 판매/점유율은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주가 견인력은 다른 변수에서 찾아야 할 것

산업

- 미국 자동차 소매판매는 12월 -2% (YoY)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감소
- 파워 트레인별로는 내연기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가 각각 +1%/-36%/+9% (YoY) 기록. 전기차 감소가 전체 시장의 하락 견인
- 전기차 판매는 3개월 연속 30%가 넘는 하락세 기록. 비중도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하락. 9월 말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종료 영향
- 세액공제 종료와 CAFÉ 규정 완화, 그리고 관세 영향 등으로 전기차 판매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하이브리드차는 전체 시장대비 상회 증이지만, 높아진 기저 영향으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의 성장률로 둔화
-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는 12월 +1%/+2% (YoY). 전월 대비 점유율 상승. 2025년 연간으로는 8%/7% 증가
- 산업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HMGMA 신공장 및 HEV 차종의 판매 호조(+9%) 등의 효과로 점유율 상승

주가

-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지속적인 점유율 확대는 긍정적
- 시장 내 HEV 수요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현대차/기아의 HEV 모델 라인업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관련 효과가 2026년에도 유지될 전망
- 미국 HEV 판매 호조는 미국 내 판매물량 증가 및 ASP 상승 등에 모두 기여하면서 글로벌 판매실적을 방어하는데 중요한 역할
- 다만, 전체 시장수요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고, 현대차/기아의 기저도 높아지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은 주가 견인력 측면에서는 다소 약화
- 2026년 자동차 업종의 주가 흐름은 SDV/자율주행차에서의 진전 및 로보택시/로보틱스/AAM 등 성장 산업들로의 확장에서 찾아야 할 것

현대차/기아: 12월 소매판매: +2% (YoY), DSR로는 -2% (YoY), 2025년 연간으로는 +8%

소매판매

- 현대차의 12월 미국 소매판매 8.7만대(+1% (YoY)), MS 6.0%(+0.2%p). 영업일수를 조정한 DSR 기준으로는 -3% (YoY)
- 현대차의 세단/RV 소매판매 -13%/+6% (YoY). RV 비중 78.0%
- 세단 중 엘란트라/쏘나타 -2%/-23% (YoY). RV 중 싼타페/투싼/팰리세이드/싼타크루즈 +8%/+10%/+14%/-21% (YoY)
-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는 8,467대(+4% (YoY). 판매 비중은 9.7%(+0.3%p (YoY))
- 기아의 12월 미국 소매판매 7.5만대(+2% (YoY)), MS 5.1%(+0.2%p). DSR 기준 -2% (YoY)
- 기아의 세단/RV가 +5%/+1% (YoY). RV 비중 70.5%
- 세단인 K5/쏘울 +8%/-33% (YoY). RV 중 텔루라이드/스포티지/셀토스/쏘렌토 -3%/+9%/+29%/-22% (YoY)
- 양사 합산 소매판매 16.2만대(+2% (YoY)). DSR 기준 -2% (YoY). 합산 MS 11.1%(+0.4%p (YoY), -0.9%p (MoM))
- 2025년 연간 현대차/기아/합산 소매판매는 각각 98.4만대/85.2만대/183.6만대(+8%/+7%/+8%, 점유율 6.1%/5.2%/11.3%) 기록

미국 시장: 12월 시장 소매판매 -2%, SAAR 1,600만대(-5%), 2025년 연간 +2%. 12월 포드/토요타/닛산 등의 점유율 상승

소매판매

- 12월 미국 시장 자동차 소매판매는 146.0만대(-2% (YoY)). 2025년 연간으로는 1,623.3만대(+2% (YoY))
- 전년 대비 하루 많았던 영업일수를 조정한 DSR 기준으로는 12월 -6%. 연환산판매대수(SAAR) 1,600만대(-5%)
- 세그먼트별로는 SUV(+7%)/픽업(+6%)/소형세단(-4%)/중형세단(-10%)/CUV(-13%)/럭셔리(-15%)/대형세단(-63%)

업체별

- GM/포드/스텔란티스 26.2만대/19.8만대/12.0만대(-4%/+7%/+4% (YoY)). MS 18.0%(-0.3%p (YoY))/13.6%(+1.2%p)/8.2%(+0.5%p)
- 테슬라 4.7만대(-14%). MS 3.2%(-0.5%p)
- 일본 토요타/혼다/닛산 23.2만대/11.9만대/8.2만대(+10%/-13%/+10%). MS 15.9%(+1.8%p)/8.1%(-0.9%p)/5.6%(+0.6%p)
- 독일 아우디/BMW 1.3만대/4.2만대(-39%/-8%). MS 0.9%(-0.5%p)/2.9%(-0.2%p)

친환경차

- 12월 미국 친환경차 판매는 29.2만대(-13% (YoY). 판매 비중 20.0%(-3.7%p (YoY))). 2025년 연간 357.6만대(+13% (YoY), 비중 22.0%)
- HEV 18.6만대((+9%). 비중 12.7%). 2025년 연간 205.4만대(+28% (YoY), 비중 12.7%)
- PHEV 1.9만대((-37%). 비중 1.3%). 2025년 연간 26.4만대(-17% (YoY), 비중 1.6%)
- BEV 8.6만대((-35%). 비중 5.9%). 2025년 연간 125.8만대(+1% (YoY), 비중 7.7%)
- FCEV 35대에 불과. 2025년 연간 374대로 극히 미미
- 전기차(PHEV+BEV+FCEV) 판매는 10.6만대(-36% (YoY)). 비중 7.2%(-3.7%p (YoY)). 2025년 연간 152.2만대(-3% (YoY), 비중 9.4%)

2026년 1월 7일 | 산업분석_Earnings Preview

엔터테인먼트

BTS와 빅뱅의 동반 컴백으로 사상 최대 이익 전망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하이브(352820)
BUY I TP 400,000원 I CP 335,500원

에스엠(041510)
BUY I TP 160,000원 I CP 117,100원

JYP Ent.(035900)
BUY I TP 95,000원 I CP 71,500원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BUY I TP 100,000원 I CP 65,100원

*CP 2026년 1월 6일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중국발 이슈에 따른 높은 변동성은 비중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올해 상반기는 지난 1년 내내 기다려왔던 역대급 모멘텀이 발현되는 구간이다. BTS의 컴백에 더해 YG의 30주년과 빅뱅의 20주년이 겹친 올해 이들의 컴백이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고, 주요 아티스트들의 경우 연간 투어 규모가 200만명까지 확대되는 고성장이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이슈로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졌는데, 하이브 제외 2026년 예상 P/E 20배 내외에서 거래되는 만큼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하다. 사상 최대 실적과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매우 임박한 모멘텀을 근거로 지속적인 비중확대를 추천한다.

4분기 실적은 JYP 부합, 하이브/SM/YG 하회

4분기 하이브/SM/JYP/YG의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25억원(-96%)/388억원(+15%)/379억원(+3%)/239억원(+2,305%)으로 JYP 부합, 하이브/SM/YG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의 매출은 지속 전망치에 부합하나 신사업/신인 그룹 데뷔 등과 관련한 대규모 비용이 또 한 번 반영되면서 부진하다. SM과 YG는 예상보다 앨범 판매량이 부진했으며, JYP는 스트레이키즈가 스페셜 앨범만으로도 250만장 이상 판매하며 부합할 것이다. 1분기에는 BTS와 블랙핑크의 동반 앨범 컴백이 예상되며, 2월에 개최되는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Golden(케데헌), APT(로제), 그리고 캣츠아이 등이 다수 부문의 후보에 오르면서 케이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BTS에 더해 빅뱅까지 컴백하면 연간 첫 합산 영업이익 1조원도 가능

BTS 완전체의 공식 발표에 더해 지드래곤이 시상식에서 빅뱅의 컴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두 팀이 동반 컴백하면서 사상 첫 합산 영업이익 1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빌보드 HOT100 기준 50위에 안착한 블랙핑크/트와이스/스트레이키즈 등은 모두 월드 투어 규모 200만명 내외까지 성장했다. 전술한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 시 높은 수혜가 예상되며, 많은 팀들이 북미 내 활동을 확대하면서 케이팝의 고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올해 모든 기획사에서 1팀 이상의 신인 그룹들이 데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모멘텀도 잘 참고해야 할 것이다.

2026년 1월 7일 | 산업분석_Earnings Preview

카지노

4분기 호실적에 더해 한일령 수혜도 기대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강원랜드(035250)
BUY I TP 23,000원 I CP 18,370원

롯데관광개발(032350)
BUY I TP 31,000원(상향) I CP 21,050원

파라다이스(034230)
BUY I TP 27,000원 I CP 15,900원

GKL(114090)
BUY I TP 21,000원 I CP 13,960원

*CP 2026년 1월 6일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더욱 강화되는 중

마카오의 2025년 GGR은 $309억(+9% YoY)으로 2019년 대비 85% 수준을 회복했다. 고객별로는 2019년 대비 Mass와 VIP가 각각 약 120%/30% 회복했는데, 대형 콘서트 및 스포츠 이벤트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 VIP보다 프리미엄 Mass에 집중하는 전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카오 카지노 산업의 실적 및 밸류에이션 회복에 더해 롯데관광개발의 경우 연간 드랍액 성장률이 60%를 기록하며 가파른 실적 레버리지와 높은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 강원랜드는 각종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특히 VIP 고객의 높은 성장을 통해 연간 드랍액이 약 8%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2년간 6,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시작되는 만큼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높다. 반대로 파라다이스/GKL의 드랍액 성장률은 각각 +4%/+2%으로 다소 아쉬웠지만, 파라다이스는 호텔 인수를 통해 2분기 이후 고성장이 시작될 것이다. 한일령 수혜로 중국-일본 간의 노선이 급감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수혜도 예상된다. 롯데관광개발은 실적 상향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31,000원(+7%)으로 상향하며 최선호주로 제시하며, 2분기부터 하얏트 인천의 소프트 오픈 효과가 확인될 파라다이스를 차선호주로 제시한다.

롯데관광개발/파라다이스 상회, 강원랜드 부합, GKL 하회

강원랜드,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L의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499억원(+16% YoY)/504억원(+2,228%)/351억원(+80%)/75억원(+36%)으로 전망된다.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는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며, 강원랜드는 부합, GKL은 하회할 전망이다. 롯데관광개발은 또 한 번 약 70% 내외의 드랍액 성장으로 4개 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며, 파라다이스는 1회성 광고비 이슈에도 호실적이 예상된다.

한일령 수혜도 기대하며

롯데관광개발의 드랍액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파라다이스와 GKL의 4분기 중국인 드랍액은 아쉽게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한일령의 수혜로 중국과 일본 간 노선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상반기 내 한국의 중국향 노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노선 확대 시 외국인 카지노 3사 모두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롯데관광개발은 현재 약 50% 수준의 콤프가 상반기 내 60% 이상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파라다이스는 매우 좋은 타이밍에 하얏트 호텔 인수를 통한 캐파 확장이 나타날 것이다.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미디어 2

2026년 1월 7일 | 산업분석

운송

2026년 해운 시황: 벌크/탱커 Good, 팬오션 주목할 것

Neutral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1월 6일

팬오션(028670)
BUY I TP 4,800원 I CP 3,825원

HMM(
Neutral I TP 21,000원 I CP 19,920원

벌크선: 배 짓는 속도가 느리다, 2026년도 긍정적인 시황 전망

2025년 벌크선의 총 발주량은 4,345만 DWT로 31% (YoY) 감소했다. 최근 Shortage 가 발생한 Capesize 위주의 발주가 연말에 집중되었다. 벌크선 운임에 대해서는 2026년 연간으로 긍정적인 톤을 유지한다. 선박 인도 속도가 오더북 규모 대비해서 매우 완만하기 때문이다. 2025년 연간 인도된 벌크선 선복량은 3,600만 DWT 규모로 2021년~2023년 간 발주된 선복량 평균 대비 77% 수준이다. 폐선량을 보수적으로 감안해도 인도 속도 때문에 2026~2027년 연간 선복량 증가율은 최대 3% 수준이며, 이연되었던 폐선이 본격화 될 경우 공급은 한층 더 긴축된다. 2026년 연간 물동량(톤마일) 증가율은 2%로 선대 노후화를 감안하면 수급 균형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컨테이너선: 희망봉 우회 지속된다면 2026년까지는 운임 방어 가능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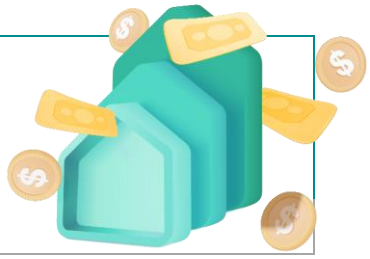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연 평균 SCFI는 1,006pt로 화주 우위의 시장이었다. 2025년 말 글로벌 컨테이너선 선복량은 2023년 말 대비 18% 증가한 3,300만 TEU 규모로 성장했으나, 2024년 초부터 희망봉 우회에 따른 톤마일 증가 효과(+11%로 추정)과 물동량 자연증가분(TEU 기준 연평균 2~3%)을 감안하면 2025년까지는 선사들의 공급 조절을 통해 운임 방어가 가능했던 구조를 설명 가능하다. 2026년 선복량 증가율은 4% (YoY) 로 전망되기 때문에, 희망봉 우회가 지속되는 한 2026년까지는 선사가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2024년~2025년간 발주된 선복량이 943만 TEU(현존 선복량의 29%)에 달하기 때문에 공급 압박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탱커선: VLCC 호황에 이어 이제는 제품선도 기대 중

2025년은 미국/유럽 등의 러시아 그림자 선단 제재로 인해서 VLCC 운임이 연초 대비 3배 가량 상승하며 마감되었다. VLCC의 평균 선령이 13년(평균 해체 선령 21년)으로 높고, 베네수엘라 등 미국이 비정규 원유를 공급하는 국가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면 정규 시장 내 VLCC 수요는 견고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적으로 2026년에는 제품선 시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품선 수요 증가의 선결조건인 석유 정제마진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마진 격차가 벌어질 경우 톤마일 증가로 이어진다. 국내 최대 벌크선사이자 탱커선사(제품선 주력)인 팬오션을 다시금 주목할 때다. 현재 팬오션 주가는 12MF P/E 6배, P/B 0.4배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1월: 2025년 결산



건설 Monthly | 2026.1.7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투자의견	Overweight	Top pick	GS건설

매수

- 건설업종 Overweight, TOP PICK으로 GS건설 유지하지만, 1월 추천종목은 없다. 삼성E&A를 TOP PICK에서 제외한 이유는 작년말까지 수주 소식이 없으면서 연간 수주 가이던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작년 하회한 만큼 2026년 가이던스에 얹어지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밸류에이션은 저렴하지만 계열사 물량(특히 P5) 추가에 따른 실적 증가 확인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고 판단했다. 2026년은 주택주 매수의 해로 보고, TOP PICK을 GS건설로 제시했지만 매수 시점을 2분기로 본다. 연초까지 여전히 주택 지표가 좋지 않은 가운데, 2026년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제시될 경우 기대감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 다만 1Q26 실적발표가 있는 2분기 시점부터는 개선된 업황에 따른 기업들의 분위기 변화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시멘트는 출하 감소에 따른 실적 감소를 내년까지 전망하지만, 최근 유연탄 수입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밸류에이션이 비싸기에 관망의견이다. 인테리어 또한 관망의견이다. 기성물량의 감소가 이어지며 B2B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B2C 실적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10.20)에 따라 수도권 매매거래량이 둔화되고 있어, 기대감이 크지 않다.

- 2025년 건설 주가에는 실적과 업황보다는 테마에 따른 기대감의 영향이 컸다. 연초에 기대감을 형성했던 실적은 분기가 지나갈수록 기대만큼 나타나지 못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국내외 비용반영이 나타나면서 추정치가 하향되기 시작했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진 것과 다르게 주가는 상반되게 움직였다. 주가를 움직였던 요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AI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투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형성됐다. 특히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원전과 SMR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관련된 테마가 떠올랐다. 현대건설의 경우 미국 홀텍 SMR,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대형원전 파트너 제휴 등으로 기대감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이후 페르미와의 FEED 수주 및 EPC 연계 기대감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DL이앤씨는 과거에 진행했던 미국 엑스에너지(SMR) 지분 투자가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여기에 AI 투자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급 부족이 발생, 이에 따라 신규 공장에 대한 투자가 재개되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삼성E&A 또한 주가가 6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주택주의 경우 대선 테마를 받으면서 3~5월 사이에 주가가 상승했으나, 이후 부동산 정책, 중대재해 관련 정책 등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잃었다. 그럼에도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는 인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연초대비 상승으로 마감됐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으로 바뀌어 가면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 11월 주택 지표는 부진했다. 11월 착공은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한 2.0만호를 기록했다. 미분양은 6.9만호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275호 감소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감소, 기타지방에서 증가했다. 준공후미분양은 2.9만호로 전월 대비 1,086호 증가했다. 광역시와 기타지방에서 주로 증가했다. 10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전국 상승했으며, 9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 지수 또한 크게 상승했다. 주택 준공은 2.3만세대로 전년동월대비 46.2% 감소했다. 5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하는 중이며, 22년 하반기부터의 착공물량 수준으로 현재 준공물량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2026년에는 월별 1만대 준공물량이 나타날 수 있다.

Global Issue

2026년 1월 6일 | 산업 이슈 코멘트

미국 우주 산업

2026년 우주 정책 지원과 주요 프로젝트 진행에 주목

2026년 1월, 여전히 뜨거운 미국 우주 종목군

미국 우주 산업 관련 종목들이 12월에 이어 26년 1월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뜨거운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1)스페이스X의 IPO 가시화에 따른 낙수효과, 2) 트럼프 대통령의 12월 18일 행정명령 발표에서 시사하고 있는 우주 관련 민간 기업 수혜, 3) 미국 우주군 FY26년 예산 증가와 관련된 기대감, 4)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나 기술 진척에서 마일스톤 달성 혹은 대형 계약 체결 등이 주요인이다. 주목하는 점은 우주 섹터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요인이 단순 기대감에서 개별 기업들의 구체적인 수주 획득과 실적 달성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우주 정책과 주요 정부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수혜에 주목

우주 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달 탐사와 같은 중요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 '미국 우주 우위 확보'라는 명칭으로 지난 12월 18일에 발령된 행정명령은 미국 우주 산업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기존의 정부 조달 시스템을 바꿔서 민간 기업의 주도적 참여와 상업적 확장을 핵심 기조로 하고 있다. 2026년은 NASA의 CLPS(Commercial Lunar Payload Services) 프로그램이 본 궤도에 오르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여러 중요 미션이 예정되어 있기에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상반기 주요 관전 포인트

미국 우주 산업 관련하여 2026년 상반기 주요 관전 포인트는 크게 4가지다. 1)아마존의 저궤도 브로드밴드 위성망 구축 가속화로 저궤도 브로드밴드 시장이 진정한 2강 경쟁 구도로 재편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경쟁 구도 재편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트럼프 행정부의 FY27년 우주군 예산 요청안과 향후 5년 전망치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어떤 프로그램이 승자가 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우주선의 AI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통한 역량 확대와 이에 따른 상업적 영향이다. 4) 제러드 아이작먼 NASA 신임 국장 취임 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진행 가속화와 2027년 과학 예산 유지 여부다. 2025년에는 NASA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관련 불확실성이 높았으나 2026년에 신임 국장 하에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주산업 세부 분야별 주목할 주요 종목

1)위성/부품 제조와 발사체 서비스 부문에서는 로켓랩(RKLB),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FLY), 레드와이어(RDW), 2)위성통신은 AST스페이스모바일(ASTS), 에코스타(SATS), 3) 지구관측 부문은 플래닛 랩(PL), 블랙스카이(BKSY), 4) 우주 탐사 관련 종목은 인튜이티브 머신(LUNR), 파이어플라이(FLY) 등이다. 최근 단기간 급등한 점과 테마주 특성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높다는 점은 고려할 사항이다. 미국 정부의 우주 산업 지원 본격적 시작과 주요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수혜, 우주군 예산 증대, 스페이스X 관련 모멘텀 등을 고려하면 2026년에 미국 우주 산업은 주요 테마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2026년 1월 7일 | Global Equity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AEP.US)

역대 최고 실적, 2026년 EPS 가이던스까지 긍정적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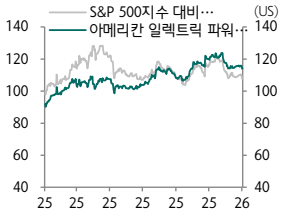
TP(컨센서스)	129.13 USD
CP(1.5)	114.07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ASDAQ
산업 분류	유틸리티
주요 영업	전기 공익 사업체
홈페이지	www.aep.com
시가총액(십억USD)	60.9
시가총액(조원)	88.2
52주최고/최저(USD)	124.8/89.91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9.67
BLACKROCK, Inc.	8.60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3.0)	9.8	26.3
상대	(3.4)	(0.1)	10.8

Stock Price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	18,982	19,721	21,297	22,803
영업이익	3,556	4,304	5,239	5,864
순이익	2,967	2,967	3,182	3,482
EPS(USD)	5.6	5.6	5.9	6.3
EPS(YOY, %)	0.0	0.0	5.1	7.0
ROE(%)	9.0	11.4	11.5	11.2
PER(배)	15.6	15.0	19.3	18.0
PBR(배)	1.7	1.8	2.1	1.9
배당률(%)	4.1	3.9	3.3	3.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증가하는 전력수요만큼 증대되는 인프라 투자 계획

기존 2025-2029년 $54B 투자계획에서 33% 증가한 2026-2030년 $72B 규모로 확대됐다. 2030년 최대 예상 전력수요 65GW에 대한 대응과 텍사스, PJM 지역 765-kV 고압 송전망 프로젝트가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 송배전 부문은 47%에서 50%로 소폭 증가했고 전력 발전은 8%에서 14%로 증가했다. 가스화력발전이 15.3GW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태양광 6.4GW, 풍력 5.1GW, 스토리지 0.5GW가 추가된다. 기존 Rate Base에 증대된 투자계획이 더해져 소매 요금으로 전가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회사는 주택용 요금 인상을 연 3.5%로 제한하고 주요 수요 대상에게만 인상된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FY3Q25 매출액 66.0억달러(YoY +11.3%) 기록

FY3Q25 매출액 66.0억달러(YoY +11.3%), 영업이익 15.2억달러(YoY +12.6%), 사업 부문별 매출은 VIU(수직통합유틸), 35.9억달러(YoY +8.6%), T&D(송배전) 16.9억달러(YoY +7.2%), 송배전 자회사(Transco) 5.7억달러(YoY +11.8%)이다. 당분기 수직통합(VIU) 및 송배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매 판매량 18.5% 증가와 송배전 부문 상업용 판매량 30.4%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 전년대비 가정용과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각 1.3%와 0.1% 감소했다. 자회사별 판매량은 오하이오 상업용 전력 판매량이 전년대비 37.2% 증가했다. 아마존, 구글 등의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으로 신규공급이 본격화 되었다. 이 외 텍사스, APCO 지역 상업용 판매량도 각 21.9%, 75.6% 증가하여 실적에 기여했다.

2025년 EPS 가이던스 달성을 전망, 2026년 가이던스 $6.15-$6.45 제시

2025년 제시된 운영 EPS 가이던스는 $5.75-$5.95이다. YTD 3Q25 EPS는 $4.78를 기록했고 4분기 EPS가 $1.17 이상일 시 2025년 EPS 가이던스 최대치에 부합한다. 무리없이 최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다. 회사는 2026년 운영 EPS 가이던스 $6.15-$6.45를 제시했다. 투자계획에 따른 2030년 기준 Rate Base와 운영 EPS 연평균상승률 각 10%, 9%가 적용된 결과다. 2026년 전력 공급은 2025년 대비 18.9%(데이터센터 6GW, 산업 전기용 1GW)가 상향될 계획이다. 2025년 7월 AEP Ohio는 주정부 위원회 승인을 받아 25MW 이상 신규 혹은 확장 예정인 데이터센터에 일회성 비용과 선불 요금제인 DCT(Data Center Tariff)를 적용했다. 미시간, 켄터키 등 대용량 전력이 필요한 모든 시설에 심의를 거쳐 확대될 전망이다.

2026년 1월 6일 | Global Equity

미국주식 이슈 코멘트

AsteraLabs(ALAB) 하락 코멘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광학 통신 관련 기업들 급락에 ALAB 동조

현지시각 1월 5일 ALAB 주가가 6.9% 급락했다. 언론에 공개된 표면적인 이유는 내부자 매도이지만 폭락을 야기했다고 보긴 어렵다. 미리 공시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SEC의 Rule 10b5-1에 따르면 해당 관계자는 2025년 5월 29일 매도 계획을 수립했고, 공시한 것처럼 1월 2일에 매도한 것이다. 내부 악재가 있어서 팔았다고 보긴 어려운 이유다.

내부자 매도 이슈보단 광학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락에 동조했다고 판단한다(COHR -4.1%, LITE -7.5%, CLS -3%, CIEN -6.2%, FN -4.7%). 광학 통신 관련 기업들과 함께 스위치 기업 브로드컴(-1.2%)도 하락했다. 전통적인 스위치 강자인 브로드컴은 광통신 기업들과 함께 알파벳의 TPU 수혜주로 시장참여자들에게 각광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더넷 대표 기업 아리스타 네트웍스(ANET)의 주가는 2.7% 상승했다. 알파벳의 통신 관련 루머가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2025년 주가 상승률: AVGO +49.3%, COHR +94.8%, LITE +339.1%, CLS +220.3%, CIEN +175.8%, FN +107.1%, ANET +18.5%, ALAB +25.6%

루머: 알파벳의 광 회로 스위치(OCS) 사용 중단

알파벳이 주력 통신 시스템인 광 회로 스위치를 포기한다는 소문은 과하다. 광 회로 스위치는 빛을 전기 신호 변환 없이 연결하는 구글의 독자적인 네트워크 장비다. 중앙 스위치를 거치지 않아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빈번한 통신에 용이해 AI 학습에 유리하다. 알파벳의 TPU 기반 수직 계열화 전략에도 부합한다.

루머가 나온 이유는 공급망 시차와 비용 등에 대한 걱정 때문일 수 있다. 우리는 '미국 이슈 코멘트: 브로드컴 급락에서 찾는 기회(2025.12.15 발간)'를 통해 알파벳 등 클라우드 기업들의 경쟁은 눈앞에 있지만, 자체 반도체 생산을 위한 TSMC의 생산 능력 한계를 지적했다. TSMC의 CoWoS 대부분을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OCS가 TPU에 특화된 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TSMC의 생산 역량이 확대되기 전까진 범용 GPU와 스위치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선 알파벳은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광학 시스템의 초기 구축 비용이 기존 스위치 대비 다소 비싸다는 점도 루머에 힘을 실은 것으로 생각한다.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산업 Issue

2026년 1월 6일 | 글로벌 리서치

미국 태양광

정책 모멘텀이 집중된 2026년

인도, 인니, 라오스 AD/CVD 재차 연기

미국 태양광 시장의 2026년은 2025년 발표되었던 정책이 구체화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상무부는 동남아 4개국(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에 이어 인도/인니/라오스로 재차 우회하는 중국산 모듈에 AD/CVD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비발표가 2025년 10월에서 12월로 연기된 이후 2026년 초로 한차례 더 연기되었다. 청원인(미국 태양광 제조연합)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었으며 상무부는 특별한 거부의 이유가 없는 한 연기 요청을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 지속 지연되고 있다. 2025년 4월 확정되었던 동남아 4개국 AD/CVD도 예비치 대비 대폭 상향조정했던 바 있어 이번에도 고율의 관세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Section 232과 PFE 기준도 발표 예정

2026년 AD/CVD 최종 판결 이외에도 Section 232와 OBBBA 내 PFE 기준 등 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상무부는 2025년 7월 1일 Section 232에 근거한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의 조사를 개시했다. 270일(연장 불가)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28일까지 상무부 최종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대통령 최종 결정은 6월 하순 경으로 예상된다. OBBBA는 기존 FEOC(해외우려기관)에서 PFE(금지외국기관)로 개념을 구체화했다. 수혜 대상이 PFE에 해당하거나 PFE로부터 어떠한 실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받은 경우 45X는 2027년부터, 45Y와 48E는 2025년 말 착공 시설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된다. PFE는 특정외국기관(SFE) 또는 외국영향기관(FIE)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개되었으나 '실질적 지원'등 표현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무부의 우선순위 가이던스 계획에 선정되었으 2026년 내 가이던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바이든 정부 시절 IRA에서 30D의 FEOC 조항을 확정하는데도 약 20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유틸리티 > 주택용 선호도 유지

미국 태양광 시장은 유틸리티용과 주택용이 양분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유틸리티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SEIA 3Q25 기준 미국 태양광 설치량은 11.7GW(YoY +20%, QoQ +49%)로 분기 최고치다. 유틸리티 9.7GW(YoY +26%), 주택용 1.1GW(-4%), 상업용 0.6GW(+9%), 커뮤니티 0.3GW(-21%)으로 구성된다. 주택용은 2025년 종료되는 25D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모듈과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유틸리티는 빠른 납기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특징으로 미국 전력난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태양광+ESS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3Q25 기준으로도 신규 전력 캐파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미국

2026년 1월 7일 | 글로벌 산업분석

미국 리츠

2025년 CMBS 연체율 정리

여전히 높은 연체율

2025년 12월 기준 미국 전체 30일 이상 CMBS 연체율은 7.30%(QoQ +0.0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섹터별로 보면 오피스는 연체율이 11.31%로 가장 높지만 두 달 연속 하락했고, 멀티패밀리도 6.98%에서 6.64%로 내려오며 부실 위험을 낮추는 모습이다. 반대로 리테일은 6.74%에서 6.92%로, 호텔은 6.17%에서 6.61%, 산업용(물류)은 0.67%에서 0.80%로 상승해 연체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우상향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전체 CMBS 연체율이 10월 7.46% → 11월 7.26% → 12월 7.30%로 박스권을 형성하며 12월 한 달 동안 순연체잔액이 약 1.03억달러 감소해 소폭 개선된 흐름이다. 다만 연간으로 1년 전 전체 연체율 6.57%에서 7.30%로 73bp나 상승했고, 특히 오피스는 YoY 약 973bp나 상승해 구조조정 구간을 유지 중이다. 멀티패밀리도 4.58%에서 6.64%로 200bp 이상 상승해 금리와 운영비 상승이 임대주택에도 누적된 상황이다. 리테일은 1년 전 7.43%에서 6.92%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연체 구간에서의 횡보, 산업용과 호텔의 연체율은 각각 0.80%, 6.61% 수준이지만 1년 전보다 크게 올라 있어 오히려 경기 변동에 후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장된 만기 물량, 위험은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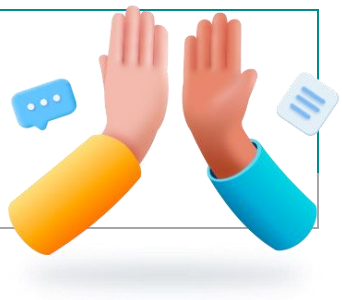
이렇게 연체율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CRE 시장에 도래하는 만기 규모는 2025년 한 해에만 약 957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체 CRE 대출 잔액 4.8조달러의 20%에 해당한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오피스 대출 중 2025년 만기를 맞은 약 26%만 전액 상환에 성공했고, 이미 만기가 지난 오피스 대출의 83.7%가 연체, 92.7%가 문제 대출로 관리되고 있다. 이 중 CMBS만 약 151억달러가 2025년에 만기 도래 예정이었고, 오피스 섹터만 놓고 보면 2026년 말까지 약 21.3억달러(이미 만기 경과 10.6억달러 + 2026년 만기 10.8억달러)가 몰려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대출이 상환되지 않은 채 2024년 만기 예정이었던 700억달러 중 271억달러가 연장되어 2025년 이후로 밀려났고, 2025년 만기 물량 중에서도 상당수 대출이 다시 2026년으로 미뤄지면서 2026년 만기 물량이 약 936억달러로 2025년 대비 19% 증가했다. S&P는 이 만기 벽이 2027년 1.26조달러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2026년은 만기 연장 효과가 한계에 다다르는 시점에 도달해 상장 리츠들 또한 3~4% 대출을 6% 내외로 갈아타야 하는 상황을 버텨야 하는 구간이다.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1/5	128,500	138,900	8.09%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1/5	946,000	1,022,000	8.03%	• 4Q25 Preview 매출액 8.6조원(YoY +78.7%), 영업이익 1.2조원(YoY +30.9%) 전망 • 호주, 이집트 등 비(非)폴란드 향 K9과 천무 매출이 전년보다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
한국전력 (015760.KS)	1/5	46,500	50,500	8.60%	• 지역별 요금차등제, 평균 전력판매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영업현금흐름 개선 기대 • 전기요금 동결에도 국제 유가 하락하며 전력조달비용 감소세 지속
키움증권 (039490.KS)	1/5	301,500	319,000	5.80%	• 브로커리지와 트레이딩을 중심으로 견조한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기조에 맞춰 배당성향 상향 가능성 높아
롯데렌탈 (089860.KS)	1/5	30,000	29,850	-0.50%	• 중고차 렌터카가 월간 1,000대 가량 순증하며 이익 기여도를 높여가고 있어 • 2026년에는 신차 렌터카의 P와 Q가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
해성디에스 (195870.KS)	1/5	54,800	50,400	-8.03%	• D5 패키지기판 공급 확대로 패키지 기판 사업 부문 턴어라운드 기대 • 전장 리드프레임 전방 수요 완만한 회복 지속
알테오젠 (196170.KQ)	1/5	457,000	474,000	3.72%	• 피하주사 전환에 대한 니즈가 투약 편의성 개선, 바이오시밀러 방어의 이유로 증가 중 • 파트너사의 지속적인 유입 전망, 공장 증설에 따른 제품 수익 증가 기대
현대무벡스 (319400.KQ)	1/5	23,700	24,200	2.11%	• 해외 사업 확장 및 유지보수 매출 확대로 점진적 수익성 개선 전망 • 국내 기업향 에너지저장장치, 화장품, 가전 관련 물류 자동화 수주 기대
에코마케팅 (230360.KQ)	1/5	13,910	15,890	14.23%	• 베인캐피탈, 공개매수 추진. 공개매수 완료 후 상장폐지에 나설 계획 • 공시상 전량 매수로 안내돼 단기 성사 불확실성이 낮은 편
RF머트리얼즈 (327260.KQ)	1/5	25,550	24,300	-4.89%	• AI 산업 성장과 공급망 탈중국 기조 덕분에 실적 우상향 지속 전망 •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따라 중국산 부품 퇴출의 수혜 가능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7.23%	+0.01%p	+7.23%	+0.0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에스피지 (058610.KQ)	1/5	82,700	75,200	-9.07%	• 대표적인 정밀기계부품인 유성/SH/SR감속기를 모두 양산 가능한 국내 독보적인 기업 • 미국 주요 로봇 메이커의 4족 보행로봇에 에스피지의 유성감속기 적용 시작
삼성전자 (005930.KS)	1/2	119,900	138,900	15.85%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1/2	651,000	726,000	11.52%	• 3Q25 Review 매출액 24.5조원(YoY +39.0%), 영업이익 11.4조원(YoY +62.0%) 기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KS)	1/2	1,695,000	1,721,000	1.53%	• 신규 수주 기반으로 5공장 안정적인 ramp-up, 1분기 초 6공장 증설 계획 발표 예상 • 1월 12~15일 개최되는 JPM healthcare에서 향후 사업전망 main track에서 발표 예정
KB금융 (105560.KS)	1/2	124,700	126,400	1.36%	• 경쟁은행 대비 확대되었던 PBR gap이 좁혀지면서 가격 매력 재부각 • 2026년에도 추정 순익 약 5.9조원 내외를 기록하며 증익 추세 굳건히 지속될 전망
삼성전기 (009150.KS)	1/2	255,000	268,000	5.10%	• 컴포넌트 사업부 외에도 패키지 및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우상향 가시성 확보 • 고부가 AI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
하이브 (352820.KS)	1/2	330,000	335,500	1.67%	• BTS, 26년 봄 신보 발매를 시작으로 연중으로 대규모 투어 진행 예정 • 글로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다양한 현지 아티스트 데뷔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1/2	114,400	136,100	18.97%	• 일회성 비용 부재와 완제기 수출 부문의 일시적 믹스개선으로 3Q25 수익성 개선 • 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한국금융지주 (071050.KS)	1/2	161,700	174,800	8.10%	•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 IMA 출시 이후 추가된 조달재원을 기반으로 레버리지 및 운용자산 규모 확대 기대
S-Oil (010950.KS)	1/2	83,000	85,200	2.65%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지역난방공사 (071320.KS)	1/2	96,400	97,000	0.62%	• 3Q25 Review 매출액 7,582억원(YoY +29.6%), 영업이익 894억원(YoY +209.6%) 기록 • 열요금 변동, 판매량 증감, 원가 변화고 세 가지 변수 모두 양호한 방향 나타내는 중
한국단자 (025540.KS)	1/2	67,300	70,000	4.01%	• 자동차의 전장화/전동화에 따른 수혜와 고객사 다변화 기대 • 자동차용/전자용 커넥터를 기반으로 반도체용/ESS용/로봇용으로 확장 중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1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4.83%	-2.39%p	+4.83%	-2.39%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4	1.5	1.6	1.7	1.8	1.9	1.10
	▪ 일본 12월 S&P글로벌 제조업 PMI F(50p, 11월 49.7p) ▪ 중국 12월 레이팅독 종합 PMI(51.3P, 11월 51.2p) ▪ 중국 12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52.1P, 11월 52.1p)	▪ 미국 12월 ISM 제조업 PMI(47.9p, 11월 48.2p) ▪ 미국 12월 ISM 구매물가지수(58.5p, 11월 58.5p) ▪ 일본 12월 전년대비 본원통화 (-9.8%, 11월 -8.5%)	▪ 미국 12월 ADP 취업자 변동(E 5.5만건, 11월 -3.2만건) ▪ 미국 주간 전주대비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E --, -5.00%) ▪ 유로 12월 전년대비, 전월대비 CPI(E --/--, 11월 2.10%, -0.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E --, 전주 --) ▪ 미국 10월 전월대비 내구재 주문 F(E --, 9월 -2.20%) ▪ 미국 10월 전월대비 제조업수주(E -1.00%, 9월 0.20%) ▪	▪ 미국 12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E 6만건, 11월 6.4만건) ▪ 중국 12월 전년대비 CPI (E --, 11월 0.70%) ▪ 중국 12월 전년대비 PPI (E --, 11월 -2.2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미국 12월 전년대비 CPI/Core CPI (E --/2.70%, 11월 2.70/2.60%) ▪ 일본 11월 BoP 경상수지 (E --, 10월 2.8조엔)	▪ 미국 11월 전월대비 소매판매(E 0.40% / 0.00%) ▪ 미국 11월 전년대비. 전월대비 PPI(E 2.60%, 0.30%) ▪ 한국 1월 실업률(E --, 2.70%)	▪ 미국 뉴욕주 1월 제조업 지수(E --, 12월 -3.9p) ▪ 일본 12월 전년대비 PPI (E --, 11월 2.70%)	▪ 미국 12월 전월대비 광공업생산 (E --, 11월 0.20%)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